

#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여는 10년

##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5)

### 고결한 민족애와 확고한 자주통일의지를 담아

2021년 9월말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민족의 운명과 후대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북남관계를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는것,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해야 한다는것, 북남사이의 신뢰가 보장되면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해야 한다는것, 북남선언들을 무계획에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는것을 비로써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사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확고한 결심, 통 큰 결단과 넓은 포용력에 의하여 2018년 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그 어떤 풍파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겨레의 숙망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의 앞길을 한히 밝혀주시어 승리로 이끄시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대성인이시디.

과 남은 증대한 북남공동선언들을 발표하여 삼천리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의 간섭과 동족에 대한 편견적이며 적대적인 관점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과 군부호전광풍의 방해책동에 의하여 온 민족의 기대와 총의를 담아 채택한 북남선언들은 어느 한조항도 리행되지 못하고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로 적대시관점과 정책들을 철회하는 커녕 아무런 태도변화도 없는 남조선당국의 철회리행

행위로 북남관계는 사실상 남조선에 보수 《정권》이 존재하던 시기와 조금도 다를 바없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또다시 밝혀주시었으니 온 겨레는 한없이 고결한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그이를 우리러 끝없는 감사와 흠모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 온 겨레를 불러 일으킨 고무적기치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보내고있으며 그 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령명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의 진보당, 《한국진보련대》, 국민주권련대, 《한국대학생진보련합》, 자주통일평화변혁운동련대

를 비롯한 진보적인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들은 성명 및 논평발표 등을 통해 시정연설의 대남 및 대외 정책적립장을 지지하면서 그에 호응해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보당 상임대표 등은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조선반도평화에 대한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되었던 남북통일협력선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신것으로 하여 관계부연의지가 다시금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북의 긍정적모습에 남측당국이 적극 화답해야 한다. 현 《정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가 크게 환영할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자주시보》를 비롯한 언론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현 《정부》는 북의 요구에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나서야 한다. 현 《정부》가 북의 군사적 행동은 《도발》이고 남조선이나 미국의 행동은 관찮다는 불공정한 견해를 버리고 북을 불신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수많은 해외동포들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온 겨레

를 통일운동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치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 결의를 피력하고있다.

참으로 겨레의 통일지향과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확고한 자주통일의지가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은 겨레를 조국통일위업수행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투쟁과 전진의 기치이다.

의연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가장 정확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밝혀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이제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어나갈것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강하고 자주적인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 조선통일운동의 위대한 투쟁의 최대의 애국투쟁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도 불구하고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통일하는것보다 더 중대하고도 절박한 과업은 없다.

70여년동안이나 지속되고있는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지금 조선사람치고 그가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의 출신이건 또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

민족분열로 하여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려야 할 동족사이의 대결과 불신이 격화되고 삶의 터전인 조선반도가 전쟁의 위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

만일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한다면 자라나는 세대들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게 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는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이 둘로 갈라진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과 불행은 없을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길이라면 통일은 자주와 변혁의 길, 민족이 살길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야말로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애국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감정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가장 보람

있는 삶도 조국을 위한 헌신에 있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속시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흥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데 있다.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민족의 분열을 더없는 아픔으로 여기면서 조국통일위업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라면 애국심을 가졌다고 뱉듯이 말할수 있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동시에 민족적특질이기도 하다.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자기를 아낌없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

통일을 떠나 살수 없는것이 우리 겨레이고 애국을 떠나 미래를 생각할수 없는것도 우리 겨레이다.

우리 겨레에게는 민족최대의 숙원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펼쳐져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의 기치,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을 한히 밝혀주시고 계시어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은 겨레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의 령도따라 나아가갈 때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의 결성과 적극적인 활동

조국통일위업의 성패는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79(1990)년 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련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민족대통일전선을 확대공고화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단체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체를 내오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왔다.

이후부터 상설적인 전민족적통일전선체를 형성할수 있는 현실적조건이 성숙되고있었다.

남조선에서 《전민련》을 비롯한 련합전선체조직들이 나왔고 해외에서도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동포

민족단체 대표들의 참가밑에 《전민족통일 해외한국인련합》이 결성되어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활동하고있었다.

공화국정부는 8.15범민족대회와 결의에 토대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조직을 내오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투쟁을 조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제1차 범민족대회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세력의 련합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을 내오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1990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베를린에서 북과 남, 해외대표들이 참가한 3차 실무회담이 진행되었다.

베를린3차 실무회담의 결의에 따라 1990년 12월 16일 베를린에서 범민련 해외본부가 결성되었으며 1991년 1월 25일에는 공화국에서 범민련 북측본부가 결성되었다.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은 《전민련》, 《전민련행》 등 당국의 탄압이 극심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적극 투쟁하여 1995년 2월 25일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하였다.

이로써 범민련은 북과 남,

해외측을 포괄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련합체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완비하게 되었으며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적기초가 보다 강화되게 되었다.

범민련은 베를린3차 실무회담의 결의에 따라 제2차 범민족대회의 서울개회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1991년 8월 15일에 진행된 제2차 범민족대회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비록 예정대로 서울에서 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판문점과 서울, 도쿄에서 같은 일정에 따라 같은 의제를 토의하고 공동의 문건을 채택한 력사적인 통일협상마당으로 되었다.

범민련은 제2차 범민족대회후 온 민족의 지향과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활동을 적극화하였다.

범민련 제3차 공동의장단회의의 결의에 따라 1992년 8월 13일 평양에서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범민련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범민련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에서는 나라의 통일이 더는 미룰수 없는 지상의 과제이며 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이 이제 더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은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선결과제이며 통일은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련방제형태의 통일국가를 창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조국통일방도는 반드시 전민족적인 합의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이 이룩되어야 하며 민족분열의 비극은 더이상 지속될수 없고 갈라진 조국을 후대들에게 남겨줄수 없다는 공동된 립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범민련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된 며칠후 판문점에서 제3차 범민족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범민련의 결성과 그 적극적인 활동으로 조국통일운동을 명실공히 거족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은 어제 오늘도 변함이 없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그러한 념원을 담아 통일이라는 이름을 새긴 뜻깊은 거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평양시의 남쪽판문에 위치하고있는 통일거리이다.

통일거리는 지난 1990년대 초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건설된 평양의 주요간선거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일일천주로 갈망하는

우리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주체78(1989)년 12월 평양시건설계획사관과 설계형성시안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광복거리2단계건설과 함께 통일거리를 새로 일떠세울것을 밝히시었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을뿐 아니라 그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당시 통일거리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겨레의 통일념원과 의지가 비친 통일거리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다.

그때 통일거리건설에 참가하였던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박금진로인은 《통일거리를 일떠세우던 건설자들의 열의가 대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아래 이 땅에 기어이 통일을 안아올 결심과 의지를 담아 통일거리건설을 붙이 번째 나게 해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평양시 중구역에 사는 김철성은 《당시 건설에 참가

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이 땅에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는 심정으로 낮과 밤을 모르고 일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정녕 이들의 이야기처럼 통일거리에는 조국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 인민들의 통일념원이 뜨겁게 여러 있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통일거리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

을 다 바칠 줄은 각오에 넘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고 곳곳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건축물과 조형물들을 볼수 있었다.

통일거리에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다 아는 성스러운 기념탑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높이 솟아있다. 이 기념탑으로는 지금까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사람들이 찾아와 조국통일을 위해 바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헌신의 세계를 가슴마다에 새기며 통일애국투쟁에 한몸바칠 결의들도 피력하였다.

대동강을 따라 길게 펼쳐진 통일거리의 대동강쪽에 서서 바라보노라면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지척의 속성이 한눈에 안겨온다.

이 유서깊은 축성에서 력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의 나날 민족단합의 뜻깊은 회합도 펼쳐졌다. 축성에 세워져있는 통일전선탑은 오늘도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온 겨레를 민족단합과 통일애국을 위한 투쟁으로 부르고있다.

이 거리에는 불굴의 통일에 국투사인 리인모선생을 형상한 반신상도 있다.

감옥도 철창도 두려움없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친 통일에국투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일의 길에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끝까지 한걸음도 갈 각오와 맹세를 드높이는 공화국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다.

정녕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선렬들의 애국의 넋이 살아있고 이 땅에 펼쳐졌던 뜻깊은 통일회합들이 어제런듯 감회깊이 떠오르게 되는 통일거리에서 사람들은 민족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기대를 다시금 가슴에 새겨본다.

우리 겨레의 드림없는 통일념원과 의지를 담아 웅장하게 서있는 통일거리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민족의 숙원을 반드시 이루고 통일의 그날을 안아올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 총련 도교조선중고급학교창립 75돐 기념모임 진행

총련 도교조선중고급학교 창립 75돐 기념모임이 얼마 전 일본 도교조선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허충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송근학부부장 겸 교육국장, 강주련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박충우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회장, 총련본부위원장들과 지부위원장들, 각급 학교 교장들 그리고 도교조선중고급학교 교직원들, 학생들, 학부형들, 졸업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국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었다. 허충만부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그는 학생들을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이어나가는 몇몇한 조선의 아들딸로, 유능한 민족인재로, 조국의 융성번영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 민음직한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이 도교조선중고급학교 창립 75돐을 기념하는 예술 공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